

## “우리 郡에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지역별 의사 수 편중 ... 1000명 당 서울 3.1명·전남 1.7명  
전국평균 2.08명·광주 2.5명 ... 광양·영암은 1명도 안 돼  
담양 산부인과 없고 담양·영암·장성·진도 소아청소년과 없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명이 채 못 되는 곳이 광주·전남지역에서만 2곳이며, 전국적으로 45곳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 의사 수가 1명 못 되는 곳은 광양(0.85명), 영암(0.89명) 등이었다. <관련기사 2·6면>  
이와 함께 인구 1000명 당 지역별 의사 수는 평균 2.08명이지만 광주·전남지역 27개 시·군·구 중 21곳이 평균에 미달하는 등 지역간 편중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 당 지역별 수

치는 서울이 3.1명, 광주 2.5명, 대전 2.5명 등인 반면 농어촌 지역인 전남 1.7명, 경남 1.68명, 충북 1.6명 등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가 아예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 의사 수는 전체 10만 7928명으로, 인구 1000명당 평균 활동 의사 수는

2.08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92곳(76.8%)이 평균(2.08명)에 미치지 못했고,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 시·군·구도 45곳(1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광주와 전남지역은 2개의 의대와 2개의 치과대학으로 인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도시지역에는 평균에 비해 월등했지만 농어촌·산간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심지어 1명도 배치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더불어 인구 분포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필요한 산부인과 등의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의 진료과목별로 분석하면 담양과 전북 무주·장수·임실 등 전국 11곳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한명도 없었고, 경북 봉화군에는 필수 진료과목인 외과 전문의

가 없었다. 더욱이 필수의료과목인 내과 전문의는 신안 등 전국의 9곳에는 1명씩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암·장성·진도·담양 등의 지역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단 한명도 없는 탓에 광주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전남건강포럼의 한 회원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 산간 지역의 의사가 현격하게 적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사의 적절한 배치와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번 통계로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지역과 진료과목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2조7638억·전남 7조1782억 내년 국비 확보...현안 사업 ‘탄력’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이 각각 2조7000억원, 7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광주는 AI(인공지능), 청정대기,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전남은 해상풍력, 바이오헬스케어 등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당초 사·도가 건의했던 규모에 반영액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현안 사업 국비가 누락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액은 2조7638억원(315건)으로, 올해보다 14%(3388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은 1233억원(65건)이며, 계속 사업은 2조6405억원(250건)이다.  
특히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38억원), 정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146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2240억원) 등의 현안 사업비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부품 신뢰성 기술고도화 사업(63억원) 등 광주 경제활력을 위한 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사업이 신규사업으로 65건1233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분야별로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이 87건, 1556억원을 반영됐다. 사회 안전망 확충과 청정 환경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업 예산

도 51건에 1조6556억원을 확보했다. 상무지구~첨단 산단 도로 개설(40억원)과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1046억원) 등 사회 기반 시설 사업비도 39건, 5682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올해(6조7261억원)보다 6.7%(4521억원) 증액된 7조1782억원(1006건)을 반영시켰다. 이는 지난해 정부안 반영액 6조7261억원(845건)보다는 증가했지만, 당초 전남도가 건의한 8조 3196억원(1144건)에는 크게 못미치는 규모다. 신규사업은 97건으로 사업비 3025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현안사업 가운데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반영액 37억원), 석유 화학 산업고도화를 위한 실용 플랫폼 구축(50억원), 첨단 정밀의료산업화 플랫폼 구축(20억원),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지원사업(40억원), 산단 대개조 주요 사업(604억원) 등이 포함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건의액(4000억원)의 절반(2000억원)이, 광주~완도간 1 단계 고속도로 건설, 경전선(광주~순천) 고속전철 건설 등은 건의액(2500억원, 1134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1046억원과 187억원이 각각 반영되는데 그쳤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전철화 사업(건의액 2920억원)은 2542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의사 확충 국민 56% 동의” 권익위, 7만 명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들은 의사수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90% 이상이 반대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1~25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6만9899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 확충’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5%가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응답자 중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 종사자’의 경우 8.5%만이 찬성했고 나머지는 반대했다. 이들의 41.5%는 ‘문제는 지역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수 부족으로,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는 ‘지역 공공의료 기관 설립·강화’라는 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교회가 미안합니다” 광주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1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교회 입구에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서울과 인천, 부산 등지의 교회에서도 사회의 뜻을 담은 이같은 문구가 설치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이날까지 ‘교회가미안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150여개가 올라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화문집회 참가자·무증상자 확진 증가 여부 광주·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완화 좌우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광화문집회 참가자와깜깜이·무증상 확진자, 음성→양성으로 판정이 뒤바뀐 사례가 늘면서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한데다. 방역당국에서는 3단계 격상 또는 1단계 완화로 가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고, 지역민을 상대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에선 지난 31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6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각각 광주 375~381번의 확진 번호를 부여받았다. 전남은 나주와 장성, 광양, 함평(군인)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확진자는 149명이 됐다. 특

히 코호트 격리된 장소 모 요양원에서 추가 확진자(요양보호사)가 발생하고,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온 대구 군부대에서 1차 음성 판정받고 전남으로 옮겨진 장병 26명 가운데 한 명이 이날 확진되면서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온다.  
광주에선 지난 29일 3명, 30일 9명, 31일 4명, 9월 1일 3명 등 일일 소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226명 중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여전히 6명이 연락두절 또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이 이미 2주일 넘게 광주 도심을 누비고 다닌 탓에 n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1년 / 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 / 2만km 선드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환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